

- 이기숙(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 육아지원학회 초대회장) -

1. 시작하는 글

유치원교육과정이 2007년에 개정되어 제대로 적용되기도 전인 2010년 1월 26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지원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시급히 개정되어야만 하는 중대한 이유와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는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초중등학교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그 개편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가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하여 2009년 11월 25일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만 5세로 1년 단축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저출산 대응추진방향’을 논의 발표함으로써 촉발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래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있는 추진정책으로는 초등학교 취학연령이 앞당겨짐으로써 향후 3-4세 교육과정 표준화를 통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국은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체제 개편 TF팀」을 결성하고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유아교육과정과 관련하여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연구의 주요내용은 (1) 현행 교육·보육과정의 이원체제로 인한 문제점 분석 및 표준화의 필요성 제시 (2)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의 체계 및 내용분석 (3) 만 3-4 (5)세 표준교육과정(안) 제시: 초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교육과정의 연계방안 (4)표준교육과정(안)의 적용방안:교사연수와 시설교재등 인프라 구축방안등이다.

이는 유아교육선진화 기반조성사업지원의 하나로 추진중인 유치원 교육과정 개편팀에서 「유아기에 달성해야할 핵심역량 및 발달 기준연구」와 연계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최근의 경향에 대해 반가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진정으로 우리 유아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심도 있는 연구와 현장의 소리에 기초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는 염려가 앞선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유아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일종의 기준이라 할 수 있으므로 아주 중요한 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유아교육자들은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으로써 교사가 유아의 반응에 따라서 유아와 함께 이루어 나가게 되는 우발적이며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에 적절한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에 큰 비중을 두었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형식적으로 규정짓기를 꺼려해 왔다.

국가수준의 유아교육과정을 제정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 일본, 불란서, 멕시코, 이스라엘,아일랜드, 영국 등이 있으며 미국, 독일, 캐나다 등은 연방정부, 지역 내지는 구 단위의 교육과정 기준이 있다. 이러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제정은 여러 연구들에서 그 장 · 단점이 논의되고 있다(OECD, 2006)

중앙에서 관리되는 전통적인 방식의 초등교육과정과는 다르게 유아교육과정은 영유아의 최선의 발달을 위해 중요한 기술, 지식, 교육접근법에 대한 국가 간에 합치된 견해는 부족하며 현재는 여러 국가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다양화 되고 있는 시점이다. 사회교육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개방적이고 총체적이며 전인적 발달을 위한 교육과정을 중시한다. 반면 유아교육이 초등학교에 부속되거나 밀접하게 연계되어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학교에 대한 적응성을 강조하고 교육과정과 교육방법의 측면에서 보다 학문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 입학직후 아동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경우, 유아교육과정에서 문해와 산수학습영역이 강조 되고있다(OECD,2006).

미국의 경우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 NCLB)개혁안이 나옴에 따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읽기/언어, 수학, 과학에 관한 성취기준을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아교육에 영향을 주게 되어 공립유치원에서도 조기 문해 및 산수기술에 대한 준비를 보다 강조하며 유치원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초기학습지침을 채택하게 되었고, 유치원에서 학습에 보다 초점을 둔 전략이 도입되었다(Kaurez and McMacken, 2004). 미국 대다수의 주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초기학습기준을 공표하였으며 이중 4개의 주에서는 3세미만 아동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다

인지발달, 조기 문해, 수학 등 학교준비교육을 추구하는 규범화되고 표준화에 초점을 두는 경향에 대해 우려하는 국가들은 유아교육과정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따라서 지식의 습득보다는 사회적 상호작용발달과 폭넓은 언어 및 의사소통기술의 발달 등 기초역량(basic competence)에 주안점을 둔다.

요약하면 각국에서 유아교육에 관하여 최근에 작성된 교육과정의 특징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보다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전반적인 유아발달 영역의 교육적 원리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OECD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접근은 국가 교육과정의 일반적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 단체와 기관들이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신들만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즉,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서 벗어나 교육을 실천하는 유치원에서 다양하게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II. 2009년 교육과정 개편과 유아교육과정의 동향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2월 23일 초·중등학교 개정 교육과정을 발표하게 되었다. 개정 작업 중에는 「미래형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아래 운영원칙은 국가독점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학교중심 자율교육과정을 강조하였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적인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결정은 단위 학교에 충분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학교교육의 실질적인 다양화와 특성화를 유도해야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 학년군 도입, 10개 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축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강조하며 우리교육이 기르게 될 인간상인 글러벌 창의인이 갖추어야 할 “창의적 핵심 역량”도 제안한바 있다. 이러한 구상안이 향후 유치원 교육과정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20세기 이전의 유아교육은 주로 자연스러운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행동 특성들을 깊이 사유하여 어린이의 본성이나 교육의 큰 흐름을 제시하는 철학적이고 관념론적인 측면에서부터 연구되었다. 유아교육과정은 Froebel의 영향을 받았고 그 이후 진보주의-Dewey, Hall의 아동연구, Thorndike의 학습이론 속에서 경험중심 교육과정, 성숙주의 발달론, 연합이론으로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지지하는 새로운 이론적 뼈대를 추구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이르러 불우아동에 대한 관심과 산업화로 인한 가족제도의 변화,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사회에 대한 관심, 정보화·세계화 등 각종 사회적인 이슈들이 영유아교육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즉 유아교육과정에 사회적 관점이 주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헤드 스타

트 프로젝트와 대학에서 많은 교육과정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후 교육과정의 재개념론자들은 교육 목표의 설정,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 교육평가와 같은 기술적인 방법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보다는 교육 경험의 본질이나 이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관심을 갖고 교육과정을 논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은 재개념화를 위해 ‘어떤 지식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의 형태는 어떠해야 하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한다. 교육과정 연구 분야에서 활발히 응용되고 있는 현상학, 해석학, 비판 이론,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과 같은 다양한 시각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재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 개념주의자들은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철학적·역사적·정치적 차원들을 밝힘으로써 교육과정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경향은 발현적 교육과정(emergent curriculum)으로서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과 프로젝트 접근법, 발도르프 교육 등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이와함께 다문화 교육, 반편견 교육, 장애아 통합교육도 모더니즘 중심의 경직된 유아교육과정에서 다원화의 시도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유아교육과정의 역사적 흐름을 토대로 볼 때, 유아교육과정은 그동안 협의의 교육과정의 개념에서 운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육과정을 교육과정의 기초(철학적, 심리적, 사회적, 역사적)로부터 이에 기초한 교육과정 개발 및 수업체제, 학습 성과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하는 광의의 교육과정으로서가 아니라, 그 중에서 특히 교육과정 개발이라는 협의의 개념에서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유아교육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유아교육과정의 체계가 교육현장에서 구체화되면서 교육 실재에 대한 탐색이 가장 우선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발을 중심으로 한 경향은 1960년대 유아교육 프로그램 모형들이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유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가 가속화되기 시작하여 1960년, 1970년대의 유아교육 분야의 주류를 이루는 연구 분야가 되었다. 그 결과 유아교육 분야에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좁은 의미에서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 되었다.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1960-70년대에 아동발달 이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유아교육과정에 관련해 있는 학자들간에 어떤 지식을, 또는 어떤 내용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의 유아교육의 사회적, 윤리적, 가치론적 측면에 대한 기초적 작업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유아교육이 이제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서 “무엇을 어디까지 가르칠 것인가?”라는 유아교육과정에 대한 담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하다.

III. 맺는 글

유치원 교육과정 변천사를 살펴볼 때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개발하려고 할 때 마다 한정된 기간 안에서 충분한 평가연구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없는 상태에서 개정에만 급급했던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제 유아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담론을 형성하고 구성해 나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으로 제시된 항목별 성취기준들이 강조 될 전망이다. 이러한 성취기준과 유아교육과를 관련하여 볼 때 이미 미국의 경우 대다수의 주에서 조기 학습기준이 마련되고 있고 프랑스나 영국등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에서 학습 기준을 담당하는 행정가들은 이러한 학습기준을 운영함에 있어 전반적인 전인아동발달을 장려하는 NAEYC 등의 권고 사항을 따르도록 강조하고 있지만 학습기준에 관한 최근의 분석연구에 의하면, 실제 현장에서는 언어와 인지영역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여러 국가들이 이전에 비해 아동들에게 구조화된 학습영역을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국가들이 규범화되고 표준화된 인지기술의 습득을 위한 학습기준의 강조보다는 기초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기초역량의 개념은 지식의 습득보다는 아동이 습득하는 역량(competence)과 경험에 기초하여 총체적인 접근법을 강조한다. 즉“역량이란 인지적 기술을 가르치기보다는 각각의 아동이 경험을 통해 배워야 하며 이를 위해 놀이와 탐구를 위한 총체적이고 개방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히고 있다(Martin-Korpi,2005). 물론 핵심역량이라는 것과 기본학습능력은 그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것이 역량이건 학습능력이건 간에 유아에게 인지적인 요소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며 비인지적인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들은 2009년에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하려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이러한 핵심역량에 기초한 기본학습기준을 만들 때 이는 유아의 기술발달을 평가하기위한 도구로써가 아니라 이제까지 유아교육의 근간이 되었던 놀이에 기초한 전인발달을 위한 통합적 유치원 교육과정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어른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들의 삶 속에서 유아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과정이 설계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초 중등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심도있게 연구 논의 되어야할 것이다. 유치원(K)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결하여 K-3, K-6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천되지 못한 이유는 국가수준의 유치원 교육과정이 교육장의 전체 맥락 속에서 상급학교와 연계성 있게 보기보다는 항상 독립된 특수 영역으로 보는 견해가 많았기 때문이다. 유아시기에 대한 연계교육 내용연구에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표준보육과정과의 관계나 영아교육과정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본다면 앞으로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내용에 대해서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07년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수준은 1,2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이전과 달리 교사용 지도자료집은 3,4,5세 각 연령별로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사실 현장에서는 3세, 4세, 5세 교육과정의 차별화가 불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관련학회나 교사 전문 단체등에서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유치원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 안주해 있기 보다는 교육 실천이 이루어지는 유치원 현장에서 ‘만들어 가는 교육 과정’의 흐름으로 교육과정을 이해하며 ‘성인’이 결정해 주는 관점이 아닌 ‘유아’의 관점에서 유아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려는 인식과 구조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Kauerz, K. and J. McMaken (2004), No Child Left behind Policy Brief; Implications for the Early Learning Field, Education Commission of the States(ECS), www.ecs.org/clearinghouse/51/82/5182.pdf. p155)에서 재인용.

Martin-Korpi,B.(2005),"The Foundation for Lifelong Learning", in Children in Europe, Curriculum and assessment in the Early Years, Issue 9, September, Children in Scotland, Edinburgh.

OECD(2006), Start Strong II ;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OECD, Paris.

1. 학회활동보고

1) 학술대회 - 2009년 한국육아지원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개최

- 일시 : 2009. 11. 14(토) 09:30 ~ 16:10
- 장소 : 경원대학교 예음관 예음홀
- 주제 :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 40주년 기념 [유아교육과정의 어제와 내일]
- 발표자 :

<기조강연>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의미

- 이원영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명예교수)

<주제강연 I >

유치원 교육과정 변천사

- 이기숙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주제강연 II >

미래 유아교육과정의 방향

- 이지현 (건국대학교 교직과 교수)

<주제강연 III >

현장에서 본 유아교육과정

- 성원경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영상 메시지 유치원 교육과정 제정의 역사 속으로

- 전선옥 (한림성심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정혜손 (명일 유치원 원감,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 유치원교육과정 개정 4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 >

- 이현숙 (경북대학 유아교육과 교수)

<<< Young Scholar Session >>>

<1분과>

초임교사의 아이덴티티(identity) 형성에 관한 질적 연구

- 박수경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 유치원 평가의 과정과 지표에 대한 교사와 평가위원의 인식
- 강수경 (동덕여자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 유아음악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문헌 고찰
- 이영애 (덕성여자대학교 영유아교육연구센터 전임연구원)

<2분과>

한국국공립 유치원의 변천과정

- 정혜손 (명일 유치원 원감,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1920년대 신문에 나타난 자녀양육 기사 중 건강 및 위생내용의 주체 분석

- 곽정인 (경원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강사)

<3분과>

유치원, 초등학교 연계에 기초한 균형적 문식성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 이지영 (성신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상위인지에 기초한 생물 그림책 토의 활동이 유아의 생물 개념형성에 미치는 효과

- 이보영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햇살유치원 만4세 유아들의 혼잣말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 김은희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강사)

2) <육아지원연구> 발간

○ 제 4권 2호 발간 : 2009년 10월 발간 (총 8편 논문)

3) 2010년 동계 연구소모임 -<주제> 위험(at risk)에 처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① 제34차 연구 소모임

○ 일시 : 2010. 1. 18(월) 10:00 ~ 12:00

○ 장소 : 경원대학교 아람관 102호

○ 주제 : 새터민 가정 지원

○ 발표 : 강재희 (우송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전셋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참석인원 : 21명

② 제35차 연구 소모임

○ 일시 : 2010. 1. 25(월) 10:00 ~ 12:00

○ 장소 : 경원대학교 아람관 102호

○ 주제 : 국제결혼 가정 지원

○ 발표 : 문무경 (한국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위원), 최명희 (마포구보육정보센터장)

○ 참석인원 : 23명

③ 제36차 연구 소모임

○ 일시 : 2010. 2. 1(월) 10:00 ~ 12:00

○ 장소 : 경원대학교 아람관 102호

○ 주제 : 장애 가정 지원

○ 발표 : 이수정 (서울 정문학교 교사), 이성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

○ 참석인원 : 20명

2. 회원동정

<저서 발간 소식>

- 이명희 외 2인 (2010), 유아교사를 위한 '장애 유아 통합프로그램의 실제', 학지사
- 이명희 외 4인 (2010), 장애인 가족지원의 이론과 실제, 학지사
- 정미라, 조희연, 안재진 (2009), 프랑스의 육아정책, 육아정책개발센터
- 홍순정, 최석란 (2010), 아동관찰과 행동연구, 교문사

<취임소식>

- 김정례 - 제 3대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 취임